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ISSN 2383-4552) Vol. 10, No. 2, pp. 169-178, Dec. 2022
https://doi.org/10.22961/JHCLS.2022.10.2.169

IPA를 활용한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분석

고민석*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nalysis of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Work Ability and the Final School Contribution Among Health Care Workers' Using IPA

Min-Seok K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College of Jeonju

요약 본 연구는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이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의 인식 수준 및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IPA를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직 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4차(2020년) 청년패널조사의 원자료 중 보건의료직 종사자 총 465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IPA를 활용한 분석결과, 개선시급영역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지속유지영역은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의사소통,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고객상대능력, 스스로 배우는 능력, 계획적인 생활습관, 변화적응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문서 이해로 나타났고, 낮은 우선순위영역은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외국어 읽고 쓰기, 수학문제 풀이, 외국어회화로 나타났으며, 과잉투입영역은 문서 작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work ability and their final school contribution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mong health care workers', and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health care training curriculum by analyzing using IPA. As for the analysis data, the response data of a total of 465 health care workers among the original data of the 14th (2020) Youth Panel Survey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zing using IPA, concentrate here area was none, and the keep up the good work area was specialized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expertise, communication,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customer response capability, ability to learn for oneself, deliberate lifestyle, ability to adapt to change, good job perspective and business manners, understanding documents. Low priority area was computer literacy, ability to creative problem solving, reading and writing in a foreign language, solving math problems, foreign language conversation, and the possible overkill area was creating a document. Based on the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effective curriculum development to cultivate health care workers were suggested.

Key Words Health care worker, Work ability, School contribution, IPA, Youth Panel

1. 서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종류도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시장은 과거의 독과점적 경쟁에서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보건의료조직들은 이에 대응하여 공급자중심, 기술중심의 조직에서 소비자중심, 환자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Corresponding Author : Mln seok Ko(Vision Colle.)
E-mail: jejuko@hanmail.net
Received Sep 21, 2022 Revised Oct 18, 2022 Accepted Nov 30, 2022

이러한 보건의료계의 변화에 맞추어 보건의료조직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1]. 보건의료서비스는 서비스 특성 상 인적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로서 인적자원이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2]. 이에 보건의료조직들은 조직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업무능력은 더욱 다양해지고, 그 역량에 대한 요구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역량이란 개인이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으로 정의되며[3], 직업훈련이나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현장에서의 실행 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4]. 우수한 인적자원 양성에 있어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5], 직무역량중심의 고등직업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심에 교육과정이 존재한다[6]. 현장과 연계된 장래 학생들의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실천적 역량을 갖춘 인재 배출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교육기관이 교육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단순한 기능이나 스킬교육에서 벗어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능력, 직업소양교육, 인성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7].

직무역량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능력의 중요도와 현재 교육과정의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교육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보건의료직 양성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8]. 그동안 보건의료직 양성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9][10]과 의료정보 분야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산업체의 직무수행능력 및 교육과정 요구[11]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 개발의 방법론적 연구이거나 산업체의 기대 또는 요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임상실습 교육내용과 업무중요도 인식[12], 임상간호사와 보건간호사가 지각한 가정간호 교육내용의 중요도 및 업무수행능력[13],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의 중요성,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도와 만족도[14] 등의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 특정 보건의료 직종 또는 특정 직무수행에 대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보건의료직을 대상으로 핵심역량 중심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또한 최종학교 생활이 업무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IPA방법은 Martilla와 James(1977)가 제시한 분석 도구로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파악한 후 개선점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에서 처음 적용되었다[8][15]. 이 분석방법은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며, 교육적 요구분석에서도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이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IPA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직 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써 미래의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제14차(2020년)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 및 노동시장 경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정부의 청년층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17]. 제14차 청년패널조사는 2007년 만 15~29세 사이의 청년층 10,206명(2020년 기준 만 28~42세)의 원표본과 2015년에 새롭게 충원된 청년층 3,516명(2020년 기준 만 20~27세)의 추가표본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응답 예약자들에 한해 일부 12월 초까지 정보수집이 이루어졌다[18].

본 연구에서는 제14차 청년패널조사 원표본 응답자 6,791명과 추가표본 응답자 2,747명의 응답자료를 기준으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의 직업코드(대분류)(y14b156z) 중 보건의료직에 해당하는 원표본 응답자 352명과 추가표본 응답자 113명의 응답자료를 통합하여 보건의료직 종사자 총 465명의 응답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제14차 청년패널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측정변수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 업무를 실제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또한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은 최종학교 생활이 업무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의미한다.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y14b246~y14b394)과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y14b261~y14b395)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은 (1) 문서나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서 처리하는 능력, (2) 문서를 작성하거나 글을 쓰는 능력, (3) 다른 사람(동료나 상사)과 의사소통 하는 능력, (4) 다른 사람(고객)을 직접 또는 전화로 상대하는 능력, (5) 외국어로 의사소통하기(회화), (6) 외국어로 된 글 읽고 쓰기, (7) 수학문제를 푸는 능력, (8)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 (9)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지식, (10) 전문분야의 실용적 기술의 습득, (11)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태도, (12)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13)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 (14)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습관, (15) 스스로 배우는 능력, (16)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의 총 16개이다.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각 측정문항에 대해 '1=전혀 중요하지 않다~5=매우 중요하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업무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한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은 각 측정문항에 대해 '1=전혀 도움이 안됨~5=크게 도움이 됨'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업무능력에 대해 최종학교의 기여도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Cronbach's α는 .884였으며,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의 Cronbach's α는 .923으로 나타나 연구도구로써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넷째,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활용하여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IPA 매트릭스는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기여도 인식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이 만나는 교차점을 정하여 4개의 사

분면을 구성하였다. Ⅰ사분면은 중요도와 기여도가 모두 각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지속유지영역(Keep up the good work)이고, Ⅱ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기여도가 낮은 개선시급영역(Concentrate here)이다. Ⅲ사분면은 중요도와 기여도가 모두 각 평균보다 낮은 영역으로 낮은 우선순위영역(Low priority)으로 구분하고, Ⅳ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기여도는 높은 과잉투입영역(Possible overkill)으로 구분하였다[19].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383명(82.4%)으로 남성 82명(17.6%)보다 많았다. 연령은 30세~34세가 174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29세 이하 122명(26.2%), 35~39세 93명(20.0%), 40세 이상 76명(16.3%)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201명(43.2%)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192명(41.3%), 고졸 41명(8.8%), 석사학위 이상 31명(6.7%) 순이었다. 전공일치도는 그런데로 맞는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06명(44.3%)로 가장 많았고, 맞는다 162명(34.8%), 아주 잘 맞다 86명(18.5%), 맞지 않다 11명(2.4%) 순이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82	17.6
	Female	383	82.4
Age	Below 29	122	26.2
	30-34	174	37.4
	35-39	93	20.0
	Over 40	76	16.3
Final education	High school	41	8.8
	College	192	41.3
	University	201	43.2
	Graduate school	31	6.7
Field-of-Study match	Mismatch	11	2.4
	Somehow match	206	44.3
	Match	162	34.8
	Perfect match	86	18.5
	Total	465	100.0

3.2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수준

연구대상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의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의 평균은 3.75였다. 각 항목의 평균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문분야 지식 4.33,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4.27, 의사소통 4.19,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4.15, 고객상대능력 4.04, 계획적인 생활습관과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각각 3.97, 변화적응능력 3.96,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3.86, 문서 이해 3.78, 문서 작성 3.74, 컴퓨터 사용능력 3.7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3.69, 외국어 읽고 쓰기 2.82, 외국어 회화와 수학문제 풀이가 각각 2.77 순이었다.

업무능력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수준의 평균은 3.59였다. 각 항목의 평균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문분야 지식 4.12,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4.06,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3.75, 문서 이해 3.74, 의사소통 3.73, 계획적인 생활습관과 스스로 배우는 능력이 각각 3.72, 문서 작성 3.69, 변화적응능력 3.64,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3.61, 고객상대능력 3.60, 컴퓨터 사용능력 3.57,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3.56, 외국어 읽고 쓰기 2.98, 외국어회화 2.97, 수학문제 풀이 2.95 순이었다.

3.3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업무

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의 전체 평균 간의 대응차는 0.163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639, p<.001). 항목별로는 문서 작성과 문서 이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분석결과를 항목별 대응차의 평균 순으로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0.465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t=10.903, p<.001), 고객상대능력 0.443 (t=9.464, p<.001),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0.400 (t=10.361, p<.001), 변화적응능력 0.320 (t=7.643, p<.001), 스스로 배우는 능력 0.254 (t=6.851, p<.001),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0.249 (t=6.528, p<.001), 계획적인 생활습관 0.241 (t=6.264, p<.001), 전문분야 지식 0.215 (t=5.986, p<.001),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0.202 (t=5.523, p<.001), 외국어회화 -0.200 (t=-4.921, p<.001), 수학문제 풀이 -0.185 (t=-4.395, p<.001), 외국어 읽고 쓰기 -0.161 (t=-3.933, p<.001), 컴퓨터 사용능력 0.153 (t=3.676, p<.001),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0.125 (t=3.398, p<.01) 순이었다.

즉, 의사소통, 고객상대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변화적응능력, 스스로 배우는 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계획적인 생활습관,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보다 최종학교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어회화, 수학문제 풀이, 외국어 읽고 쓰기는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보다 최종학교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서 작성과 문서 이해는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Level of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work ability and the final school contribution
[표 2]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수준

Items	Importance of work ability			Final school contribution		
	Mean	S.D.	Rank	Mean	S.D.	Rank
Specialized knowledge	4.33	0.718	1	4.12	0.799	1
Pract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expertise	4.27	0.738	2	4.06	0.836	2
Communication	4.19	0.729	3	3.73	0.863	5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4.15	0.688	4	3.75	0.819	3
Customer response capability	4.04	0.769	5	3.60	0.878	10
Deliberate lifestyle	3.97	0.790	6	3.72	0.849	6
Ability to learn for oneself	3.97	0.720	6	3.72	0.793	6
Ability to adapt to change	3.96	0.773	7	3.64	0.850	8
Good job perspective and business manners	3.86	0.735	8	3.61	0.810	9
Understanding documents	3.78	0.772	9	3.74	0.743	4
Creating a document	3.74	0.881	10	3.69	0.836	7
Computer literacy	3.72	0.896	11	3.57	0.945	11
Ability to creative problem solving	3.69	0.851	12	3.56	0.841	12
Reading and writing in a foreign language	2.82	1.143	13	2.98	1.030	13
Foreign language conversation	2.77	1.076	14	2.97	1.021	14
Solving math problems	2.77	1.138	14	2.95	1.024	15
Total	3.75	0.514		3.59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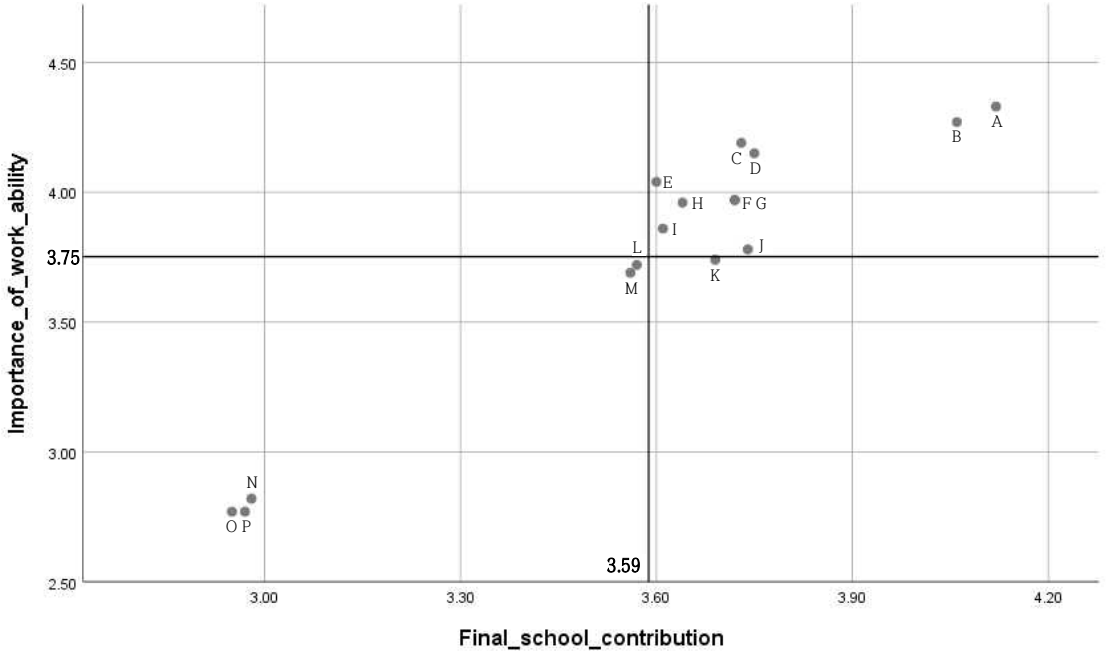
3.4 IPA를 활용한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분석

연구대상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을 IPA Matrix를 구축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표 4]와 같다.

IPA Matrix를 통해 지속유지영역, 개선시급영역, 낮은 우선순위영역, 과잉투입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모두 각 평균보다 높은 지속유지영역에는 총 16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의사소통,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고객상대능력, 스스로 배우는 능력, 계획적인 생활습관, 변화적응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문서이해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높으나 최종학교 기여도가 낮은 개선시급영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모두 각 평균보다 낮았던 낮은 우선순위영역에는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외국어 읽고 쓰기, 수학문제 풀이, 외국어회화의 5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낮으나 최종학교 기여도가 높은 과잉투입영역에는 문서 작성이 포함되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이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의 인식 수준 및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IPA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직 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탐색함으로써 미래의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양



A: Specialized knowledge, B: Pract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expertise, C: Communication, D: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E: Customer response capability, F: Ability to learn for oneself, G: Deliberate lifestyle, H: Ability to adapt to change, I: Good job perspective and business manners, J: Understanding documents, K: Creating a document, L: Computer literacy, M: Ability to creative problem solving, N: Reading and writing in a foreign language, O: Solving math problems, P: Foreign language conversation

[Fig. 1] IPA Matrix

[그림 1] IPA 매트릭스

[Table 4] Distribution results of IPA matrix by items
[표 4] IPA 메트릭스의 항목별 분포 결과

Area	Items
Ⅰ. Keep up the good work	A: Specialized knowledge, B: Practical knowledge in the field of expertise, C: Communication, D: A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s, E: Customer response capability, F: Ability to learn for oneself, G: Deliberate lifestyle, H: Ability to adapt to change, I: Good job perspective and business manners, J: Understanding documents
Ⅱ. Concentrate here	-
Ⅲ. Low priority	L: Computer literacy, M: Ability to creative problem solving, N: Reading and writing in a foreign language, O: Solving math problems, P: Foreign language conversation
Ⅳ. Possible overkill	K: Creating a document

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제14차(2020년)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 YP) 응답자 중 보건의료직 종사자 465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먼저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 수준은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의사소통,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고객상대능력이 평균 4.0점 이상이었고, 계획적인 생활습관, 스스로 배우는 능력, 변화적응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문서 이해, 문서 작성,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0점 이상 4.0점 미만, 외국어 읽고 쓰기, 외국어 회화, 수학문제 풀이는 평균 3.0점 미만이었다. 또한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수준은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이 평균 4.0점 이상이었고,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문서 이해, 의사소통, 계획적인 생활습관, 스스로 배우는 능력, 문서 작성, 변화적응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고객상대능력,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평균 3.0점 이상 4.0점 미만, 외국어 읽고 쓰기, 외국어회화, 수학문제 풀이는 평균 3.0점 미만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패널조사의 대졸취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배천웅과 남혜선[4]의 연구에서도 역량의 중요성에서 전문분야지식 및 기술역량이 가장 높았고, 상대적으로 외국어 역량, 수학역량은 다른 역량에 비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교육 기여도도 전문분야지식 및 기술역량이 가장 높고, 수학역량과 외국어 역량은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은 업무내용 중 전문분야의 지식과 실용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최종학교의 기여도도 높게 인식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환자진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 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 필수적이며[20], 최근 보건의료조직들이 소비자중심, 환자중심의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고객상대능력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보다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낮았던 항목들의 대응차 평균은 의사소통, 고객상대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이 0.4 이상이었고, 변화적응능력은 0.320, 스스로 배우는 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계획적인 생활

습관,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은 0.2 이상 0.3 미만,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능력의 중요성과 최종학교의 기여도의 차이는 전문적 직무수행과 관련된 항목은 낮았으나, 의사소통, 고객상대능력,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등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항목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외국어회화, 수학문제 풀이, 외국어 읽고 쓰기는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보다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외국어 교육은 그동안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교육이며, 특히 외국어 교육은 대학교육에서 더욱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업무내용의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에서 모두 수학역량과 외국어역량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 더욱이 업무내용의 중요도보다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더 높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방향 설정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요구된다.

셋째, IPA 매트릭스를 통해 지속유지영역, 개선시급영역, 낮은 우선순위영역, 과잉투입영역으로 구분한 결과,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높으나 최종학교 기여도가 낮은 개선시급영역은 도출되지 않았다.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모두 높은 지속유지영역은 전문분야 지식, 전문분야 실용적 지식, 의사소통,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고객상대능력, 스스로 배우는 능력, 계획적인 생활습관, 변화적응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문서이해의 10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최종학교 기여도 인식이 모두 낮았던 낮은 우선순위영역은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외국어 읽고 쓰기, 수학문제 풀이, 외국어회화로 나타났으며,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낮으나 최종학교 기여도는 높은 과잉투입영역은 문서 작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에서도 지속유지영역에 대해서는 교육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한편, 특히 의사소통, 타인과 협력하는 능력, 고객상대능력, 스스로 배우는 능력, 계획적인 생활습관, 변화적응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비즈니스 매너, 문서이해 항목들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낮은 우선순위영역에 포함된 컴퓨터 사용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외국어 읽고 쓰기, 수학문제 풀이, 외국어회화와 과잉투입영역에 포함된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교육방향 및 교육방법에 대한 재고(再考)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직무역량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신뢰할 수 있는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 수행된 바 없는 보건의료직 종사자의 업무능력에 대한 중요도와 이에 대한 최종학교 기여도의 인식 수준 및 이들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IPA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직 양성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충분한 변수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횡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에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추론에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직 종사자에 대한 업무능력 요구도와 교육의 기여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결과를 충분히 고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1] M-S. Ko, 'Analysis on the Related Factors to Professionalism of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s', *Health and Welfare*, Vol.16, No.1, pp.81-98, 2014.

[2] M-S. Ko,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Belief in Public Service, Sense of Calling, Job Involvement, and Customer Orientation for Health Care Workers', *Health and Welfare*, Vol.21, No.3, pp.151-174, 2019.

[3] McClelland and David C., 'Testing for competen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Vol.28, No.1, pp.1-14, 1973.

[4] C-U. Bae and H-S. Nam, 'An Analysis of Learning Outcomes of College Education Recognized by Employed College Graduates: Based on Graduates' Perceptions of Competence and Contributions of college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38, No.1, pp.265-294, 2017.

[5] W-J. Lee and Y-A. Cho, 'An Importance Analysis of NCS on Secretarial Job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urriculum in Colleg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Vol.24, No.2, pp.29-52, 2015.

[6] S-B. Jeong and J-W. Kim, 'A Study on Evaluation Basic Model and Evaluation Area of the Practical Arts Curriculum Evaluatio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5, No.2, pp.1-16, 1999.

[7] S-I. Han and S-H. Lee, 'Improvement Strategy of Basic Academic Skills for Junior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Scholastic Achievement Grades of the each Departm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10, pp.524-531, 2012.

[8] D-J. Jeong, K-J. Jeon and I-K. Kim, 'Air Force Cadets General Physical Education by IPA,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Vol.77, No.2, pp.260-281, 2021.

[9] H-J. Lee and H-S. Kim, 'Integration of Program Outcomes and NCS in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3, No.2, pp.175-181, 2015.

[10] J-Y. Choi, 'Model of developing NCS based insurance claim using hospital information system(HI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3, No.2, pp.203-209, 2015.

[11] S-H. Kim, J-Y. Choi and K-H. Seok, 'A study on the health information sector university job performance and curriculum needs of the industry for graduate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5, No.1, pp.29-36, 2017.

[12] C-H. Kim, S-J. Shin and M-S. Shin, 'The awareness of dental hygienist regarding the content of clinical practice education and importance of du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7, No.6, pp.1067-1080, 2017.

[13] S-J. Yu, S-L. Kim, H-C. Baek and J-E. Lee, 'Importance of Education Contents and Competencies on Home Care Nursing of the Hospital and Public Health N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7, No.1, pp.5-14, 2000.

[14] Y-J. Kang, 'Importance of Job Tasks, Job Training Requirement and Work Satisfaction felt by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5, No.1, pp.1-13, 2005.

[15] Martilla J. A. and James J. C.,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41, No.1, pp.77-79, 1977.

[16] J-Y. Park, 'Needs Analysis of AI Education in Liberal Arts: Using IPA',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24, No.2, pp.75-84, 2021.

[17] J-H. Kwon, S-K. Yang, S-Y. Lee and S-J. Park, 'Youth Panel 2007 14th Basic Analysis Report',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20.

[18]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User's Guide YP2007 1~14th*', 2021, available from https://survey.keis.or.kr/yp/ypguide/List.jsp.

[19] Xu MengXing, 'A Study on the Level of

Community Wellbeing in Chungcheongbuk-do: Using Traditional IPA and Revised IPA',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Vol.26, No.2, pp.71-96, 2022.

[20] S-Y. Kim,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n Medical School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19, No.1, pp.10-17, 2017.